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12.21~2016.12.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사찰불화명작강의 | 강소연 | 불광출판사 |
| 2 | 바람불면 다시오리라-소설 법정 | 백금남 | 샘앤파커스 |
| 3 | 유식으로읽는반야심경 | 요코야마코이츠/허암 | 민족사 |
| 4 | 틱낫한기도의힘 | 틱낫한 | 불광출판사 |
| 5 | 니까야로읽는금강경 | 이중표 | 민족사 |
| 6 | 불교를철학하다 | 이진경 | 한겨레출판 |
| 7 | 붓다아비담마(체계적으로배우는) | 멤틴몬/김종수 | 불광출판사 |
| 8 | 유마경강의(상) | 남회근/송찬문 | 마하연 |
| 9 | 안되겠다내마음좀들여다봐야겠다 | 용수 | 나무를심는사람들 |
| 10 | 대방광불화엄경강설48(여래십신상해품) | 여천무비 | 담앤북스 |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 마흔 이후, 가족·친구·일만 있으면 되는 걸까?

## 인생이라는 산에서 내려가는 연습

**마스노 슌묘 지음 | 김지연 옮김 | 담앤북스 펴냄**
**1만 3천원**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이 잘 전해질지 곰곰이 생각한 후, 단어를잘 선택해서 전달하는 것이 '구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마음이 온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온화한 분들이셨어'라며. 그렇지만 이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화가 나서 마구 소리를 지르고 싶어지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업'을 수행한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온화한 태도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일, 가족, 친구, 붙든다고, 곁에 오래 머문다고 저절로 내 편이 되지는 않는다. 나이 듦에 따라 관계를 재정립해야 내 사람, 내 일을 잘 지킬 수 있다. 예컨대 부부의 경우, "올라갈 때에는 오르막길에 걸맞은 부부관계가 있듯이 내려갈 때에는 내리막길에 걸맞는 새로운 부부관계가 탄생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런데 대체로 남자들은 이런 부부관계의 변화를 알아채는 데 둔한 편이다. 아내는 이미 산을 내려가며 새로운 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알아채지 못한 채 여전히 같은 산을 계속 오르려 하는 것이다. '자식을 위해' 혹은 '생활을 위해'라는 발상에서 벗어나 부부가 함께 다음 목표를 찾아야 한다고 저자는 조언한다. 이렇듯 하산길에는 나를 둘러싼 환경을 다른 시각에서 보는 일이 우선되어야, 다음 행동을 현명하게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고독을 즐기되, 사람들 사이서 고립되지 않기를 권한다. 파수공행(把手共行)이라는 선어가 있다. '신뢰할 만한 사람과 손을 맞잡고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일컫는 말이다. 저자는 "혹시 지금 외로움에 괴로워하고 있거나 인생을 함께 걸어가 줄 사람이 없다며 한탄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느닷없이 자기 앞에 나타나 주길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스스로 누군가의 가슴속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라고 권한다.

특이한 것은 '애매하게 하는 것도 지혜'라는 가르침이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어느 한쪽으로 결정지으면 다툼이 일어나므로, 억지로 어느 한쪽으로 결정짓지 말고 둘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 생활이 익숙해진 배우자를 억지로 자신의 고향으로 이끌지 말고 한 사람은 고향에, 한 사람은 도시에 살며 가끔 서로를 방문하는 것도 괜찮다고 귀띔한다. 이 책은 이렇듯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중년 이후의 삶의 비결에 대해 알려 주고 있다.

저자는 또한 "하나의 산을 끝까지 오른 후 무사히 하산하는 것. 그것이 완결입니다. 영원히 정상에 머물고 싶어 매달리는 것은 마치 인생이라는 산에서 조난을 당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조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평온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산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라고 조언한다.

'선어'는 말 그대로 선(禪)에 관한 말이다. 하지만 선은 말이나 글 이상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기도 하다. 이 책에서는 각 장마다 깨우침을 주는 선어들이 등장한다. 특히 불퇴전(不退轉)의 결의(수행으로 도달한 경지에서 다시 범부의 상태로 후퇴하지 않다), 지족(知足:만족할 줄 알다), 유연심(柔軟心:유연한 마음) 등 마흔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선어가 있어 책을 읽는 중간 중간, 말뜻을 깊이 음미할 수 있다. 또한 십우도 그림 10장을 통해 인생사에서의 올라감과 내려옴의 의미를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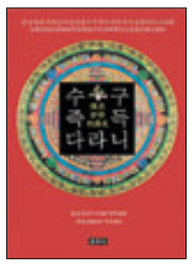
**저자 마스노 슌묘는?**

1953년 출생했다. 일본 조동종의 총본산인 소지지(總持寺)서 수행했으며, 현재 일본 겐코지(建功寺)의 주지이다. 이밖에 다마미술대학 환경디자인과 교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특별교수 등의 직함을 갖고 있다. 선(禪)을 주제로 한 정원 창작 활동을 펼쳐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원 디자이너로는 처음으로 일본 예술 선장 문부대신 신인상을 받았다. 2006년에 〈뉴스위크〉 일본판의 '세계가 존경하는 일본인 100인'에 선정되었다. 도쿄의 캐나다 대사관과 세룰리언 타워 도쿄 호텔의 일본 정원 등이 그의 작품이다. 국내에 번역된 책으로는 〈스님의 청소법〉 〈심플한 생활의 권유〉 〈삶의 품격을 높이는 1일 몸가짐〉 〈화내지 않는 43가지 습관〉 등이 있다.

# 부처님도 인정한 최상 제일 진언

## 수구즉득다라니

**불공금강 한역 | 석법성 역주 | 운주사 펴냄 | 9천원**



수구즉득다라니는 '구하는 바에 따라 즉각 얻게 하는 진언'으로, 부처님께서도 이를 다라니 중에 '최상이며 제일'이라고 하셨다. 이 책은 〈대수구즉득다라니경〉을 우리말로 옮기고, 가피의 효험, 사서 방법, 공양법 등을 덧붙여 누구라도 혼자서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라니(dharani)는 '선법을 기억하여 지니고, 악법이 일어나지 않게 막다' '지혜와 가피를 총섭하여 지니다'의 의미를 지닌 비밀스런 언어다. 진언, 주, 총지, 능지라 번역하는데, 보통 좀 긴 것을 다라니, 짧은 것을 진언이나 주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진언수행은 주로 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많이 행해져 왔는데, 대승불교권에서 진언을 외우거나 관하거나 사경하거나 하는 등이 불교 수행의 한 방편으로 수용되었다. 이 책의 원제는 〈금강정유가최승비밀성불수구즉득신변가지성취다라니의궤〉로 신수대장경 제20책에 실려 있는데, 멸악취보살의 간청으로 부처님께서 대진언인 근본진언과 소진언인 심불심진언, 일체불심인진언, 관정진언, 관정인진언, 결계진언, 불심진언, 심중진언 등 8개의 진언을 말씀해 주시고, 그 진언들의 공덕과 효험, 가지력 등을 설한다.

수구즉득다라니가 설해진 인연과 공덕을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멸악취보살이 부처님께 청하길 "여래의 방편은 헤아릴 수 없고, 여래의 신통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오직 원하오니, 세존께서 고통을 없애는 비밀법을 설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들의 부모로서 오탁의 중생들을 위하여 성불을 결정하는 법을 설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나에게는 비밀법이 있는데 세상에서 아주 보기 드물며, 죄를 소멸하고 성불하는 데 최상 제일이니 (구하는 바에 따라 곧바로 얻는 진언으로) 수구즉득진언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 다라니를 염송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혹 다라니의 이름을 염송하거나 단지 그 이름을 들었거나, 그런 사람들과 친하거나, 심지어는 그런 사람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일체 천마일체 선신의 왕이 모두 와서 수호해 주어서 재난을 없애고 안온을 얻게 해준다. 만약 이 진언을 염송한다면 일체 중죄가 모두 다 소멸하고 무량한 복덕을 얻으며 죽을 때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설령 오역죄의 중죄를 지었어도 극락세계의 상품에 태어나 다시는 윤회의 태어남을 받지 않는다.

또한 누구든 이 진언의 이름만 지녀도 당연히 안락을 얻고 모든 병이 없으며, 재물이 불같이 성하게 일어나 풍족하게 되고, 매사가 원만하고 길하게 되며 복덕이 증장한다.

"마치 부처님이 모든 법의 왕이듯이 이 다라니를 지니고 염송하는 자도 가장 최상이며 제일이니라. 멸악취여! 이 진언은 일체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진언은 일체 중생들의 모든 고뇌를 여의게 할 수 있으며, 이 진언은 일체 중생들에게 크게 요익하게 할 수 있으니, 그들의 원하는 것을 충만하게 하느니라."

불교 수행에는 다양한 방편이 있다. 그중에는 온전히 자력으로 열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수행법이 있는가 하면, 타력으로 좀더 손쉽게 열반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수행법도 있다. 그리고 자력, 타력은 개인의 근기와 인연에 따르는 것이니 그 우열을 가리는 것은 허망한 일이라고 하겠다. 어느 방편을 택하든 깨달음, 즉 열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진언 수행도 수행 방편의 하나이며, 나아가 최상승 방편의 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수구즉득다라니에 대해 말씀하시길 "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을 널리 설하여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 가운데 이 진언이 가장 최상이며 제일이니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라고 하셨다. 즉 진언 중의 근본진언이 바로 이 수구즉득다라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쌓아온 죄업장을 모두 소멸하고 성불의 인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록에는 역자가 다른 책들을 참고하여 수구즉득다라니의 가피의 효험, 서사 방법, 공양법 등을 정리해 수록해 놓았다.

김주일 기자

# 부석사에 숨겨진 문화 코드 찾아 떠난 답사기

## 무량수전에 말 걸다

**전광철 지음 | 사회세상 펴냄 | 1만 3천원**



이 책의 시작은 현직 교사인 저자와 제자들의 여행서 시작되었다. 글쓴이는 수많은 답사를 다녔고 부석사를 공부하면서 부석사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부석사를 오가며 부석사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지만, 부석사를 그저 스쳐 지나가듯 훑어보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 가슴 한켠의 그러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모여 한 권의 답사 책으로 만들어졌다. 놀랍게도 부석사에 관한 본격적인 책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글쓴이가 사명감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부석사 여정에 앞서 글쓴이는 부석사와 수미산 구조를 설명하며, 이런 구조를 머릿 속에 담아두고 부석사에 오르면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인다고 친절히 설명한다.

그를 따라 단풍이 곱게 든 길의 시작에서 일주문과 천왕문을 만나고, 아름다움의 극치인 무량수전과 안양루, 범종루, 조사당 등을 함께 둘러보면서 곳곳에 숨겨진 옛 건축가들의 문화 코드를 찾다보면 부석사가 왜 아름답고 소중한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답사 중간중간에 아미타불에 대한 이해나 팔작지붕, 공포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들은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답사에 양념 역할을 한다.

부석사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부석사가 가진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면 글쓴이의 역할은 그저 족할 뿐이다.

최재헌 건국대 교수는 추천사를 통해 "부석사는 통일 신라 한국 불교의 형성기에 창건되어 대승 불교의 신앙과 토착 신앙의 성지로서 1500여 년을 이어온 절이다. 우리는 부석사에서 경사진 지형과 어우러진 절 집의 조화로운 배치와 그 속에 담긴 불교 신앙의 정수를 엿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부석사서 마음을 여미는 길을 찾고 있다. 이 책에서 그 여정을 함께하면서 조상들이 남긴 문화 코드를 찾는 기쁨도 쏠쏠하다. 지금까지 학생들을 사랑하며 묵묵히 삶의 의미를 찾아온 그 길을 많은 분들이 함께 걸으며 공감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저자는 고백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부처님의 원음에서 배우는 지혜와 행복의 길!



짧지만 깊은 부처님 말씀

아함경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하루에 한 편, 아함경의 가르침을 현대인에 맞게 되살린 보경스님의 초기경전 강설!

선사들의 어록과 일화, 시대를 아우르는 동서양 고전, 철학과 문학을 넘나드는 사유와 성찰!

보경 저 / 국판 / 372쪽 / 16,000원



가장 오래된 조사들의 문답

조당집 읽기



『조당집』은 당나라 시대 선의 태동과 전개과정, 선사들의 삶과 어록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전해 내려온다.

이 책은 『조당집』에 수록된 중요 문답과 어구는 물론이고, 다른 선어록들을 참고하여 등장 선사들의 전기와 일화, 선어록을 덧붙이고 간략한 해설을 하였다.

정영식 저 / 신국판 / 352쪽 /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